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사무실 휴무 월, 목)

Website: www.stfrancisk.org

청년 website: facebook.com/gropus/yagfyny

Email: stfrancisk.org@gmail.com

주임신부: Fr. Andrew Reitz, O.F.M

지도신부: 김성인 미카엘(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michaelkofm@gmail.com

지도수녀: 김도경 첼레스틴(투스정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ohanleosb@gmail.com

사목회장: 이서원 마리로사 201.787.0879

한국학교: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민수 6,22-27

[화답송] 시편 90(89),2와 4.5-6.12-13.14와 16(◎ 17ㄱ)

(후렴) 주 하느님의 어치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 산들이 솟기 전에, 땅이며 누리가 생기기 전에, 영원에서 영원까지 당신은 하느님이시웁니다. 천 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밤과도 같사웁니다. ◎

○ 당신이 그들을 쓸어 내시니, 그들은 아침에 든 선잠 같고, 사라져 가는 풀과 같사웁니다. 아침에 돌아나 푸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 버리나이다.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게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제2독서] 야고 4,13-15

[복음환호송] 시편 145(144),2

◎ 알렐루야.

○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복음] 루카 12,35-40

[성가안내]

- 입당성가 [57] 우리는 목장의 백성이로세
- 봉헌성가 [77] 주 천주의 권능과
- 성체성가 [181] 신비로운 몸과 피
- 파견성가 [까지 까지 설날] 주보4면 광고칸다

세상의 칭찬과 비난에 좌우되지 않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돌아서지 않고
첫마음으로, 다시 첫마음으로



- 박노해 사진 Laos, 2011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영어복음	보편지향기도	봉헌	복사	성찬봉사
1월 26일	김진섭 야고보	조정환 제랄드	원혜경 아네스	김진희 아델라	박시현 마리아	조완준 박정은	한창희 박지현	이규완 이은경 이정현 김지영 백이백 이서원 박정자 김영희
2월 2일	백이백 아오스딩	김종화 필립보	민덕미 안젤라	신혜정 소화데레사	김애희 테클라	주현경 김보현	한창희 오석진	장혜윤 이경자(울) 박민재 이지연 양미숙 김영숙 윤숙자 김창훈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미사	두 번째 토요일 오후 6:00 아래 성당
고해성사	미사 30분 전 아래성당 고해소
혼인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세례	사무실 : 347-834-5784

[복음 묵상]

날 수 셀 줄 알기를 가르쳐주신 하느님 덕분에 인간들은 대단히 오래전부터 낱자의 기준을 정해놓고 한해를 돌아봅니다.

하느님과 조상들을 기억하면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새해에도 우리의 삶이 하느님의 축복 속에 풍요한 결실을 맺도록 기도하는 날인 설날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단지 우연한 연속이 아닙니다. 신약성경의 그리스어에서는 시간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인데,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고, 특별한 의미가 담긴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했습니다. 계획된 목표를 위해 무르익은 순간을 뜻하는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는 생명으로 채워진 현재이고 선물로서 주어진 시간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여전히 고달파 보이고 힘겨운 순간이 닥쳐와도 "우리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난 시간 속에서 뜻을 이루시는 하느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닥치든 "하느님이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하고 물을 수 있습니다. 실패의 아픔 속에 슬퍼하는 중에도 우리는 결국 우리 삶이 하느님의 더 큰 생명과 희망의 축과 합류하리라는 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어차피 '새로운 시간'이란 달력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의 다짐과 결심 속에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끝없는 시작의 새로움은 시간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결심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결심 속에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간을 지내는 이유입니다. 미래에 대한 새로운 결심을 하게 만들고, 앞으로 벌어질 일상의 삶을 결코 소홀함이 없이 소중하게 보내리라는 결단, 이것이 오늘 이 설날을 축일로 보내는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복음은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 놓고 있어라, 혼인 잔치에서 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라고 가르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띤 사람은 일하는 종입니다. 좋은 주인 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좋은 자기 위주로 살지 않습니다. 그런 종이 되어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 스스로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범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어라.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있어라." 정말로 이 한 해가 하느님을 향해 깨어 있는 나날이 된다면 참으로 우리 모두에게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영상 상담이 가능한 MD들이 시술합니다



미백레이저
리프팅/탄력
얼굴윤곽시술
웨딩케어
맨즈케어
메디컬스킨케어

Clear Laser CITY CLINIC
501 5TH AVE. #2011, NY, NY
212.697.1802

Instagram ID: clearlascity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자순례
박 아그네스
646-808-7322

이민전문 (아오스당)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ATTORNEY AT LAW
STEVEN LOUROS
Expert in personal injuries
212-481-5275 (New York)
718-423-0448 (Flushing)
1261 Broadway suite 1100 New York
slourosesq@yahoo.com

COMPASS
Helena Park
Real Estate Broker
helena.park@compass.com
212-289-8899
110 Fifth Avenue, New York, NY 10011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 370-0394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WEST 58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1am-11pm /Sun:12pm-9pm

인쇄·책출판
당일 인쇄가능
EDDM, Mailing Service / Yelp Email Marketing
T. 212. 971. 0212 / 268. 2776
208 W. 29TH ST., # 203, NY, NY 10001


더큰집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원주 WONJO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그리운 **miss KOREA**
10 W 32ND STREET 1,2,3 FL, NY
201-888-6765

BRYANT PARK DENTAL
2 WEST 46TH STREET SUITE 501 NY
212-779-3368
1585 PALISADE AVE FORT LEE
201-585-0404

뉴욕 맨하탄 미드타운 통증병원
THE WELLNESS ROOM
물리치료사 김미카엘
한의사/카이로프랙터 김소피아
212-302-2692

광고주를 찾습니다.


- 설날(까지 까지 설날) 노래**
1. **까지 까지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곱고 고운 땀기-도 내가 드-리-고
새로 사온 신발-도 내가 신-어-요
 2. 우리 언니 저고-리 노란 저-고-리
우리 동생 저고-리 색동 저고-리
아버지와 어머-니 호사하-시고
우리들의 절반-기 좋아하-세-요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창세 12,2)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한해, 경자년이 밝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에 대한 복을 약속하시며,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라고 명하신 것처럼,
 나도 너에게 복이 되는 한 해가 되도록 결심합니다.
 -김성인 미카엘 신부

지난 주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 2,536 윤요한 신윤길 제갈경희 임노엘 유희순 서지석 박아영 이종환 김성모 오인희 최도운 김알버트
감사헌금	\$ 0
합 계	\$ 2,536

❖ 꽃봉헌 : \$ 0

2월 성경 공부

수요일 12.19.26	2:30-3:45Pm 7:15-8:30Pm	클레어 룸
주일 2.9.16.23	1:30-2:50Pm	코리안 컨퍼런스룸

[환영합니다]

우리 성당에 처음 방문하신 분,
 전입하신 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정기모임 및 행사]

설 명절

- 일시 및 장소 : 오늘 미사 후~1Pm, 친교실
 - 일정 : 1)공동체 어르신들께 세배예절
 2)전통놀이(요셉회 주관)
-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찬양·치유 미사

- 일시 : 오늘 5pm
- 장소 : 가톨릭 센터 / 준비물 : 없음
- 주최 : 미동북부 성령쇄신 봉사자협의회
 뉴저지 지구

[다가오는 행사]

주일학교·한국학교 개강 : 2.2

주님 봉헌 축일 초 예약 판매

2월2일 주님 봉헌 축일을 맞아 학부모회가 각 가정에서 1년간 사용할 초를 주문 판매합니다.
 ◦ 마감 : 오늘, 다미아노 홀 입구
 신청하신 초는 2월2일(주일)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여성 꾸르실료 봉사자 교육

동북부 울뜨레아 사무국이 주관하는 '여성 제38차 꾸르실료'를 위한 봉사자교육이 1/28 ~ 4/20일까지 13주 동안 뉴저지 가톨릭회관에서 있습니다.
 김승애 클라라자매님과 제갈경희 세실리아 자매님이 봉사자교육 수강자로 함께합니다.
 많은 꾸르실리스따의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모집합니다]

“성경말씀과 나” 원고를 보내주세요.

잔잔한 일상에 가슴을 뛰게 하거나,
 우울한 날, 지친 날에 삶을 다독이던,
 여러분에게 얼어붙은 바다를 쪼개는 도끼였던
 하느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다?
 그 흔적을, 울림을 공유하고 싶은 분을
 기다립니다.
 ◦ 원고의 분량 : letter 사이즈 1장 이내.
 (글씨크기 11포인트, 줄 간격 160%)

한국학교, 주일학교 교사

- 한국학교 문의 :
 김민정 세라피나(917.887.5040)
- 주일학교 문의 :
 김가연 크리스티나(347.882.2244)

청년 성가대 단원 및 반주자

- ‘처음처럼’에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청년성가대는 매달 4번째 주일 미사를
 담당하며 매주 주일 1시 반에 연습합니다.
-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매주 주일 오후 연습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음악 전공자를 찾고 있습니다.
- 문의 : 정동혁 미카엘(카톡 : cdh306)

야훼이레 청년 찬양팀 음악피정

주님 안에서의 ‘심’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마태 11,28)

- 일시 : 2.1(토) 4-7pm
- 장소 : 다미아노 홀
- 신청서 : 페이스북 청년회 페이지 참조
 신청서 싸인업해야 자리가 확정됩니다.
- 문의 : 이재인 베로니카
 (카톡 : thegreatjaney)

성탄 밤 미사에서 성대하고 아름다운 장식으로 교회는 꾸며졌고, 나와 딸 이름으로 각각 꽃을 1주 전에 바쳐서 더욱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저는 당신의 크신 자비에 힘입어, 당신 집으로 들어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거룩한 궁전을 향하여 경배 드립니다.” (시편 5,8)

주님을 찬양하는 성가와 미사전례를 마치고 나서, 모두가 기쁜 모습으로 빠져 나가는데 제대 앞에 갓 내어나신 아기로 누워계신 모습을 보니 눈물이 흐르는 나의 모습,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은/ 절대 가난하신 예수님을 마주하면서 / 기쁨보다는 슬픔의 눈물이 어리는 떨리는 손으로 / 아기의 발을 만지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제대를 물러나오며,

입구에서 주교님의 강복을 개별적으로 받고 교회를 나왔다.

40년 전 저는 어린 아이라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찾아 주셔서 성령께서 저를 인도 하셔서 성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신께서는 “지각없이 내 뜻을 가리는 이자는 누구이냐?”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신비로워 알지 못하는 일들을 저는 이해하지도 못한 채 지꼈었습니다. (욥기 42,3)

2020년 1월 1일 미사에서 지난 일 년 동안 해온 성서읽기와 묵상표를 봉헌하면서 하느님 말씀으로 살아가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바치는 나의 선물이 되고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기로 다짐하면서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이 될 것이다. 앞으로 1년에 성서 한권씩 통독하고 묵상하면서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프란치스칸으로 서약을 한지도 20년이 되었네요. 사부님의 유언에서

1. 현재 우리 수도회에 있는 형제들과 세상의 끝 날까지 들어올 나의 모든 형제들에게 강복한다고 기록해 놓으세요.
2. 나는 쇠약함과 병고로 인하여 말조차 할 기력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세 마디말로 나의 뜻을 나의 형제들에게 밝히려고 합니다.
3. 나의 축복과 나의 유언에 대한 기억의 표시로 **항상 서로 사랑하고,**
4. 우리의 귀부인이신 거룩한 가난을 **항상 사랑하고 지키며,**
5. 또한 어머니이신 거룩한 교회의 고위 성직자들과 다른 모든 성직자들에게 **충성을 다하고 항상 순종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상기하며 프란치스칸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

본당 게시판

[기도해주세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5)

김화자(소화테레사) 정인해(예로니모)
김순한(루시아) 김옥지(아가다)
전마지(마가렛) 이재오(클레멘트)
이종환(T.아퀴나스) 이정주(소화테레사)
정창동(폴리나) 김용기(요셉)
김동희(헬레나) 고종호(마태오)

[감사합니다]

♡떡 봉헌
김애희(테클라)

♡'성경말씀과 나' 원고내신 분
“당신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에 빛입니다.”
(시편 119,105)

김영빈(루시아)

[추천합니다]



정태현 지음

저자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삼분의 일이나 차지하는 비유를 연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분과 사상을 똑바로 이해하는 지름길임을 역설하며, 비유의 저마다 독립적인 메시지를 자세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들 안에 숨겨진 주제와 메시지를 발굴해내는 데 큰 도움이 될 이 책을 도서성물부에서 만나보세요^^